

영한 문학번역에서 문체 반영의 평가도구로서
그라이스 격률의 유용성:
*The Old Man and the Sea*의 인용동사를 중심으로

구 상 본
(독립연구자)

1. 서론

번역학 연구에서 그라이스(Grice 1975)의 협조 원리와 대화 격률을 적용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도훈(2012: 25-26)은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번역에 응용하여 한영 소설 번역 시 참고할 수 있는 번역 격률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번역 격률은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에 ‘새로운’ 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이 내포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그러한 번역 격률을 위배하는 경우 TT 독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논한 후,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에 기초해 번역 격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 실무 지침과 번역품질평가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의연, 조숙희(2018: 168-169)는 그라이스가 제안한 대화 격률은 번역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영어권 문화와 다른 담화 방식을 갖는 문화에는 대화 격률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 대화 격률의 해석은 간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며, 화용적 능력을 갖춘 번역가는 간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을 고려하여 이러한 간문화적인 차이에 맞는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라이스 대화 격률은 인간이 따르는 의사소통의 행위 규범으로 제안되었으며,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반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대화 격률에 기초하여 번역 격률을 제안하더라도 김도훈(2012)의 번역 격률처럼 위배가 허용되지 않는 처방적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마갈라(Margala 2009: 87-88)는 그라이스의 프레임워크가 문학 번역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문제 중 일부를 설명하고 내러티브의 필수 요소를 구성하는 미세한 뉘앙스의 구문과 의미론적으로 풍부하게 층을 이루고 복잡한 표현을 번역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매우 독특한 문체와 혁신적인 표현 방식으로 유명한 체코 작가 보후밀 흐라발(Bohumil Hrabal)의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구체적인 사례를 그라이스 원리에 따라 분석하였다. 마갈라는 텍스트의 함축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번역의 비교를 통해서 ST의 함축을 인식하고 식별하지 못하면, ST에 비해 풍부함과 표현력이 부족한 비효과적이고 일차원적인 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Margala 2009: 87-88).

본고에서는 번역연구에서 그라이스 대화 격률의 유용성에 대한 조의연, 조숙희(2018)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라이스 대화 격률 중 방법의 격률을 적용하여, ST와 TT에서 수집한 언어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ST의 문체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TT 문체의 적확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ST 저자의 문체를 번역가가 자신의 TT에서 어떻게 반영하였는가에 두며, 그 목적은 영한 문학번역에서 문체 반영의 평가도구로서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방법의 격률 위배(flouting)와 유표적(marked) 표현

그라이스는 합리적인 대화 상황에서 작용하는 대화의 격률 네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것의 준수나 위배를 통해서 함축이 발생하며, 단순히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넘어서 맥락의존적인 추론을 통해서 함축 의미가 전달된다고 하였다. 그 협조 원리(Cooperative Principle)는 아래와 같다.

- (1) 대화에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그 당시 대화의 목적에 의해 필요한 만큼 되도록 하라. (Grice 1975: 45)

이 협조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의 목적 또는 방향에 맞게 합당한 말을 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이성적 인간으로서 따르는 행동 원칙과 같은 것이다. 그라이스에 따르면, 이 협조의 원리와 함께 대화 참여자는 4가지 대화의 격률을 기반으로 합당한 말을 하며 그 격률들은 다음과 같다.

(2) 양(Quantity)의 격률:

1.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한 만큼 제보적이 되도록 말하라.
2.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 이상으로 제보적이 되지 않도록 말하라.

질(Quality)의 격률:

1.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2. 당신에게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관계(Relation)의 격률: 적절하게 말하라.

방법(Manner)의 격률: 명료하게 말하라.

1. 모호함(obscurity)을 피하라.
2. 애매함(ambiguity)을 피하라.
3. 간결하게(brief) 말하라/불필요한 장광설(prolixity)을 피하라.
4. 순서대로(orderly) 말하라. (Grice 1975: 45-46)

격률은 대화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격률의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화가 붕괴하지도 않는다. 대화에서 말하지 않은 채 전달되는 의미는 추론을 통해 청자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대화 참여자가 대화 격률을 의도적

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협조를 지키기 위해 속에 담긴 뜻을 추론하게 되는데 그라이스는 이것을 함축(implicature)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함축 의미는 격률의 준수뿐만 아니라 위배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이다(이성범 2002: 213). 그라이스는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 발화에서 직접 말해진 것과 2) 발화에 함축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말해진 것(what is said)’은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그라이스 1975: 58, 이성범 2002: 206에서 재인용).

(3) A: Why is it so cold here?

이것은 단순히 방이 추운 이유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표면적인 문장인 ‘말해진 것’의 의미 외에도 ‘방이 추우니 난방을 좀 해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함축은 특정 어휘나 표현에 의존하지 않으며,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고 한다(이성범 2002: 208).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에서 방법의 격률은 ‘명료하게 말하라’이며, 이 격률의 세 번째 하위조항(sub-maxim)은 ‘간결하게(brief) 말하라’, 즉 ‘장광설(prolixity)을 말하지 말라’이다. 나머지 대화 격률과 달리 이것은 화자의 말하는 방식에 관한 격률이다. 그라이스는 이 세 번째 하위조항 위배의 예시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4) a. Miss X sang “Home Sweet Home”.

b. Miss X produced a series of sounds that corresponded closely with the score of “Home Sweet Home”. (Grice 1975: 55-56)

화자b가 협조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4b)의 발화는 (4a)와 비교할 때 진리조건 상으로 동일하지만 모호하고 긴 차이가 있다. 따라서 (4b)는 노래 “Home Sweet Home”의 명확하고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그로 인한 함축은 ‘비정형(atypical)’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그라이스는 화자가 이처럼 간결하고 거의 동의어인 표현 대신에 장광설을 말하는 것은 Miss X의 노래하는

행위(performance)와 보통 ‘노래하다(singing)’는 단어가 적용되는 행위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청자는 그녀가 노래를 몹시 못했다는 함축 의미를 추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Grice 1975: 56). 방법의 격률에서 세 번째 하위조항을 위배할 경우, ‘화자는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다른 함축을 생성하게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방법의 함축으로 유효성이라는 전통적인 언어학적 개념과 매우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다(Rett 2020: 59).

본고의 분석대상 ST인 *The Old Man and the Sea*의 인용동사 said처럼, 전달하는 정보량에 맞게 간결하게 말하지 않고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루하고 단조롭게 장광설로 전달하는 것은 해당 표현의 ‘말해진 것’ 이외의 함축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필자는 ST 저자가 문체의 직접성을 선택하여 해당 ST 표현에 대해 자신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방법의 격률에 대한 위배를 통해서 독자의 적극적 해석을 유도한 점에 대해, TT 저자가 이러한 직접성의 문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방법의 격률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며 분석 결과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2.2 화행 없는 인용동사의 반복 사용과 ST 문체의 직접성(directness)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란 화행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동사이다. 예를 들어 약속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약속하다’, 경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고하다’ 등이 수행동사이다.

- (5) a.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 줄 것이다.
b. [나는 너에게 자동차를 사 줄 것을] 약속한다.
- (6) a.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b.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5b)와 (6b)의 수행동사 ‘약속하다’와 ‘경고하다’는 [] 표 안의 언표내적 행위가 각각 ‘약속’과 ‘경고’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수행가설에 따르면, 수행동사

를 사용하여 발화수반력을 나타내며, 수행동사가 모든 발화의 발화수반력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준다. 위의 (5b)와 (6b)에서는 (5a), (6a)의 발화수반행위가 각각 약속과 경고의 발화수반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해 수행동사인 ‘약속하다’와 ‘경고하다’를 사용한 것이다. 수행동사가 사용되어 특정 발화가 어떤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명시적 수행이라고 하고, 수행동사가 사용되지 않아 특정 발화가 어떤 언어행위를 나타내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암시적 수행이라고 한다. 수행동사가 사용되는 명시적 수행은, 발화가 어떤 발화수반력을 나타내는지를 드러내므로, 청자가 발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인용동사(quotative verb)는 인용문의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를 말하고, 인용문은 다른 것들에 비해 화용론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하며, 둘 이상의 발화상황이 형성되는 문장이다. 인용동사의 주 기능은 어떤 발화-인용문-가 실제의 발화상황에서 어떤 언어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용동사는 화행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화행동사 중에는 인용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전영철 1990: 53). 인용문에는 발화상황이 반영되는데, 발화상황의 요소에는 화자, 청자, 발화, 화행 등이 있다. 인용동사는 ‘말하다’, ‘발언하다’, ‘중얼거리다’, ‘하다’와 같이 발화의 양식을 나타내는 동사와 ‘대답하다’, ‘말대꾸하다’, ‘묻다’, ‘설명하다’와 같이 발화수반력이 있는 동사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전영철 1990: 49-50).

- (7) a. ‘I have some good news,’ she whispered in a mischievous way.
 b. ‘What is it?’ he snapped impatiently. (Yule 2018: 274)

- (8) You know it aint what I wanted dont you?
 Yeah. I know that.
 You lookin after Rosco good?
 He aint been rode.
 Why dont we go Saturday.
 All right.
 You dont have to if you got somethin else to do.
 I aint got nothin else to do. (Yule 2018: 275)

(7a)와 (7b)는 전통적인 문체로 직접화법을 표현한 것으로, 인용동사 표현은 화자의 표현방법, 목소리의 질, 감정 유형을 나타낸다. (8)은 현대적인 소설에서 제시된 직접화법으로, 드라마 대본처럼 행 구분만 있고 어느 캐릭터가 발화하고 있는지 표시하지 않았다.

(9) a. “Let us take the stuff home(A),” the boy suggested.

b. “Let us take the stuff home(A),” the boy said. (15)

((A)와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9a)와 (9b)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헤밍웨이는 인용문 (A)의 인용동사로서 인용문의 화행에 적합한 suggested를 said로 대체하였다. 그는 직접화법 인용 프레임에 대해 전통적인 처리방식이나 인용 프레임에서 인용동사를 생략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ST에서 발화 양식을 나타내는 동사인 said를 반복적으로 장황하게 사용하였다. 발화수반력을 가진 수행동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전언기능 중심의 said로 의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ST에서 인용문의 화행을 해석하여 제시하지 않는 비해석적인 관점을 부각하였고 인용문의 화행과 톤을 독자가 직접 해석하게 하는 직접성(directness)을 중시하는 자신의 문체 특성을 부각하였다.

2.3 ST의 문체 특성

분석대상 ST로 헤밍웨이의 대표작이자 그의 문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 중 하나인 *The Old Man and the Sea*를 선정하였다. 헤밍웨이가 오랜 침체기를 겪은 후 1952년 완성한 이 작품은 100여 쪽 분량의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지에 발표되자마자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리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이 작품으로 풀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10) 노인과 바다가 1952년에 등장했을 때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최고의 비평가들이 이것이 문체에 의한 성과라고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문체는 초기 헤밍웨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기도 했는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깔끔한 문체를 만든 것이다. 이제 산티아고 이야기에서 간결한 어법, 단순한 구문, 반복, 리드미컬한 목적을 위한 접속사의 사용은 무뚝뚝하고 터프가이 같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Justus 1983: 106) (필자의 번역임)

헤밍웨이의 문체 특성은 동사 표현에서 발견된다. 히튼(Heaton 1970: 12-13)은 ST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said 동사가 헤밍웨이의 문체 특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헤밍웨이가 표현의 직접성을 선호하는 것과 사소한 사항 까지도 작가가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히튼은 헤밍웨이가 표현의 명료성을 선호하여 대화상황에서 가능한 수많은 표현 가운데 특정한 단어를 선택한 예로서 said를 언급하였는데, ST에서 “he said”로 표현할 수 있는 대화상황이 184회 있으며 그 가운데 said가 170회 사용되었고, 앞부분이 질문인 경우 said를 사용하지 않고 asked를 8회 사용한 것도 자신의 표현이 기이한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였다(Heaton 1970: 12-13). 그럼에도 헤밍웨이는 표현의 직접성을 위해 정확성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노인과 소년이 대화상황에서 웅얼거리든, 소리치든, 속삭이든 인용동사를 모두 said로 표현하여 결론을 독자가 내리게 한 것이다(Heaton 1970: 13).

ST에서 등장하는 대화상황은 대부분 노인과 소년 간의 대화나 노인의 독백, 노인과 바다의 대화로 구성되며, 이러한 대화는 직접화법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서 헤밍웨이는 ST의 인용문에 사용하는 인용동사로서 said를 주로 사용하였고, 인용문의 화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행동사의 사용을 지양하였다. 이러한 said의 용법은 일반적인 소설의 인용 프레임 구성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방법의 격률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설의 저자는 대화상황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용동사를 대화 내용의 화행에 맞추어 적절한 수행동사와 수식어를 선택하지만, 헤밍웨이는 전언기능만을 가지며 화행이 없는 said를 반복적으로 ST 전체에 걸쳐서 사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대화는 노인과 소년, 노인과 바다 간의 양자 간 대화이거나, 노인의 독백이므로 대화를 표현하기 위한 직접화법 프레임에서 인용부호만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

만, 헤밍웨이는 said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방법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으로 말해진 것 이외의 함축 의미를 생성하는데, ST 독자에게 대화 내용을 직접 전달하면서 대화 참여자 간의 응대의 톤을 유지하기 위한 ST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said 표현 및 그것의 반복을 통해서 ST 독자가 인용문의 화행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대화 내용은 ST 저자의 개입 없이 ST 독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TT에서는 said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행동사가 사용되면서 인용문의 화행을 해석하였다.

3. ST 및 TT 분석

3.1 ST에서 인용동사 said의 사용 및 응대 톤의 대화 전달

ST에서 수집한 언어데이터는 다른 내러티브를 제외한 직접화법에 의한 표현 부분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 said를 비롯한 인용동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ST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ST, pp. 9-28)은 노인이 빈손으로 귀향하여 마중 나온 소년과 만난 시점부터 다음날 노인이 다시 출어하기 전까지 줄거리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노인과 소년의 대화뿐이다. 여기서 노인-소년의 대화는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운 친구 간의 대화로서, 화자-청자(I-You) 간의 친밀한 응대(addressing)의 톤¹⁾으로 진행되며, 응대의 톤을 전달하는 표현인 said(52회)와 said happily(1회)가 모두 53회 사용되었다. 두 번째 부분(ST, pp. 28-41)은 노인의 출항 시점부터 청새치가 낚이기 전까지로 대화는 노인의 독백과 노인-바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바다와의 대화에서는 적대적 관계인 고깔해파리가 등장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응대의 톤을 전달하는 said(2회)와 said aloud(5회)가 모두 7회 사용되었다. 세 번째 부분은 노인의 낚시줄에 청새치가 걸린 시점부터 청새치를 잡은 시점까지

1)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년, 바다, 군함새, 만새기는 노인과 우호적인 관계이며, 고깔해파리, 청상아리, 갈라노는 적대적인 관계이다. 노인이 사투를 벌여 잡은 청새치는 적이면서 친구의 관계에 있다. 전체적으로 ST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응대 톤을 TT에서 적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원작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ST, pp. 41-94)로, 노인-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노인-바다와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나 경련이 난 자신의 왼쪽 손, 자신의 머리와 대화하는데, 이것은 독백을 의미하며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인용동사로 *said aloud*를 빈번히 사용하였다. 노인-바다의 대화에는 청새치와 조그만 새가 등장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응대 톤을 전달하는 *said*(51회)와 *said aloud*(14회), *said softly, aloud*(1회),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1회)가 모두 67회 사용되었다. 네 번째 부분(ST, pp. 94-100)은 노인이 청새치를 잡은 시점 이후부터 처음으로 상어(텐투소)와 마주치기 직전까지이다. 대화는 노인의 독백 위주이며, 대결 상대이자 친구인 청새치와의 대화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응대의 톤을 전달하는 *said*(6회)와 *said aloud*(5회)가 모두 11회 사용되었다. 다섯 번째 부분(ST, pp. 100-120)은 노인이 처음 상어를 만난 시점부터 노인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시점까지로 모두 바다 위에서 이루어진 발화이다. 여기서는 노인-바다 간의 대화, 즉 갈라노와의 사투에서 노인이 상어에게 내뱉은 발화와 자신과의 독백이 등장한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응대 톤을 전달하는 *said*(15회)와 *said aloud*(6회)가 모두 21회 사용되었다. 마지막 부분(ST, pp. 120-127)은 노인이 귀향한 시점부터 소설이 마무리되는 테라스의 관광객 일행과 웨이터의 대화 부분까지인데, 노인-소년의 대화, 소년-어부의 대화, 소년-가게 주인의 대화, 여성 관광객-웨이터의 대화, 남성 관광객-여성 관광객(일행)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응대의 톤을 전달하는 *said*가 모두 18회 사용되었다. ST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화는 출어 전후에 있었던 어촌에서의 노인-소년 간의 응대 톤의 대화와 출어 중에 바다에서 진행된 노인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은 ST에서 사용된 인용동사에 대해 ST 내의 위치, 내용, 인용동사의 종류와 사용 빈도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ST 내 직접화법 인용동사 종류 및 빈도

순서	ST 내용	ST 인용동사	빈도
첫 번째 부분	노인이 귀향하여 소년과	<i>said</i>	52회
	만난 후부터 노인이	<i>said happily</i>	1회
	출어하기 전까지	<i>asked</i>	6회
	부분(어촌)	<i>agreed, explained, told</i>	각각 2회 이내

두 번째 부분	노인의 출항 시점~청새치가 낚이기 직전(바다 위)	said said aloud	2회 5회
세 번째 부분	노인의 낚시줄에 청새치가 낚이는 시점~청새치를 잡기 직전(바다 위)	said said aloud said softly, aloud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told, added, asked	51회 14회 1회, 1회 각각 2회 이내
네 번째 부분	노인이 청새치를 잡은 시점~처음 상어와 만나기 전 시점(바다 위)	said said aloud	6회 5회
다섯 번째 부분	처음 상어를 만난 시점~항구에 도착하기 전 (바다 위)	said said aloud	15회 6회
여섯 번째 부분	귀항 시점~종결 부분 (어촌)	said: shouted, called, asked	18회 각각 2회 이내

인용동사 *said*는 전언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동사로서, 인용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헤밍웨이는 분석대상인 ST에서 인용동사로 *said*를 총 177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ST에 사용된 전체 인용동사의 총 사용횟수인 197회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것은 *said*가 헤밍웨이의 문체 특성을 나타내는 유효적 표현임을 의미한다. ST에 사용된 인용동사 표현 중에서 *said*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방법의 격률 중 세 번째 하위 격률을 위배하면서 이례적인 표현이 되었고, 그 결과 말해진 것이 아닌 다른 함축 의미를 전달하였다. 수식어 없이 *said*만 사용된 것은 총 142회이며, *said*에 수식어가 추가된 표현은 총 35회에 해당한다. 그 외 *asked*, *told*, *called*, *explained*, *agreed*, *added*, *shouted*가 총 20회 사용되었다. 따라서 ST에서 *said*는 단순히 전언 기능만을 갖는 인용동사가 아니며, 방법의 격률 중 세 번째 하위 격률인 ‘간결하게 말하라’를 위배하면서, ST 저자가 비해석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대화의 바탕을 이루는 응대의 톤을 직접 전달하였다. 그라이스 대화 격률에 따르면, 방법의 격률을 위배하여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할 경우 말해진 것 이외의 함축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다음은 ST 내에서 수행동사 대신 *said*가 사용

된 사례들이다.

(11) 단언 화행(제안):

“Let us take the stuff home,” the boy said. “So I can get the cast net and go after the sardines.” (15)

“We can do that,” the boy said. “But what about the eighty-seven of your great record?” (17)

(12) 표현 화행(감사):

“That’s very kind of you,” the old man said. “Should we eat?” (20)

(13) 표현 화행(감탄):

“What a fish it was,” the proprietor said. “There has never been such a fish. Those were two fine fish you took yesterday too.” (123)

(14) 언약 화행(위협):

“Fish,” he said, “I love you and respect you very much. But I will kill you dead before this day ends.” (54)

(15) 지시 화행(간청):

“God help me to have the cramp go,” he said. “Because I do not know what the fish is going to do.” (60)

이처럼 헤밍웨이는 직접화법 표현에서 인용문에 대해 다른 소설들처럼 수 행동사를 사용하는 대신 전언기능을 갖는 said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그 결과 ST에서 직접화법에 사용된 인용동사의 빈도는 대체된 수행동사 빈도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3.2 ST의 유표적 표현 said/said aloud의 분석

said는 20세기 일반적인 산문에서도 직접화법 인용동사로 등장하지만, 현재 분석대상인 ST에서는 과다하게 사용되는 이례적인 표현이다. ST에서 said는 직접화법의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인용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언기능만을 수행하

는 무표적 표현이 아니라, said가 전달하는 인용문, 즉 대화가 대화 참여자 간에 응대 톤을 유지하고 있다는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

ST에서 인용동사로서 수식어 없는 said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지만, said aloud, said softly, aloud, said happily,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said to him, said to his left hand 등의 표현도 추가로 사용되었다. said aloud가 단순히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이 바다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소년이 없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고, 자기 생각을 소리를 내어 표현하고 있는 유표적 표현이라는 점을 ST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6) He did not remember when he had first started to talk aloud when he was by himself. He had sung when he was by himself in the old days and he had sung at night sometimes when he was alone steering on his watch in the smacks or in the turtle boats. He had probably started to talk aloud, when alone, when the boy had left. But he did not remember. When he and the boy fished together they usually spoke only when it was necessary. They talked at night or when they were storm-bound by bad weather. It was considered a virtue not to talk unnecessary at sea and the old man had always considered it so and respected it. But now he said his thoughts aloud many times since there was no one that they could annoy.
(39)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발화할 때 인용문에 대한 인용동사로 said aloud가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은 바다 위에서 행한 발화의 인용동사로서만 전적으로 사용되었다(표 1 참조). said aloud가 ST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다음 (17)의 발화에서이며, ST 내에서 바다 위에서 진행된 대화 중 최초의 발화이기도 하다. ST에서 노인이 바다에서 군함새가 날치 떼 위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발견한 장면이다.

- (17) “He’s got something,” the old man said aloud. “He’s not just looking.” (33)

said aloud는 말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발화양식을 표현하는 인용동사이지만,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소년이 배를 떠나고 노인이 혼자 고기를 잡게 된 이후 생긴 습관으로서 노인이 자기 생각을 소리 내어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향후 '4. TT 분석 결과'에서 ST의 유표적 표현인 said와 said aloud의 장황한 반복 사용이 생성하는 함축 의미와 그로 인한 ST 문체의 직접성이 각 번역가의 TT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3.3 TT 소개 및 분석 방향

분석텍스트로는 헤밍웨이의 *The Old Man and the Sea*에 대한 5개의 한역본(김옥동, 장경렬, 김인규, 김병철, 정봉화의 번역)을 선정하였는데, 그 간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한역본 가운데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통시적인 관점, 번역본으로서의 의의, 헤밍웨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해제 시점을 감안하였다.

김옥동, 장경렬, 김인규의 번역은 모두 2012년 같은 해의 작품들이다. 당시 국내 출판 상황을 보면 헤밍웨이 사후 50년을 맞아 2012년 저작권이 풀리면서 국내에서 헤밍웨이 책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그중 『노인과 바다』가 인기작이었다. 2012년에 번역된 것만 5종에 이르고 김옥동 번역과 김인규 번역은 1만 부씩 판매되었으며 장경렬 번역도 같은 해 3월에 출간된 것이다.²⁾ 이들은 모두 통시적 관점에서 최근의 번역서에 속한다.

정봉화의 한역본은 1955년 대진문화사에서 출간되었는데,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하 '사업단', 2005: 163)의 평가에 의하면 가독성은 있으나 원문에 없는 군말이 많이 덧붙여져 있고 부정확한 번역이 적지 않으며³⁾, 줄거리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번역을 누락한 부분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 번역을 참고한 것이 1959년 황찬호의 번역이며, 1959년 황찬호, 1964년 정병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김병철의 번역인데, 이 번역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대부분 다른 번역에서 그대로 나타날 정도로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1970년대에 나온 번역들은 김병철의 영향으로 비교적 고른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사업단

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1/2012053103020.html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20207/43838689/1> 참고

3) ST의 과거시체를 TT에서 현재시체로 옮긴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2005: 163). 1980년대의 번역도 70년대의 번역과 별 차이가 없고 김병철과 황동규의 번역수준을 뛰어넘는 번역을 찾기 어렵고, 1990년대와 2000년에 출간된 번역들은 오히려 70~80년대 번역보다 충실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읽기에 부담이 없는 세련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과 거리가 있는 부정확한 번역이 자주 발견된다(사업단 2005: 163). 헤밍웨이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함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고 하였다(사업단 2005: 165). 대상 TT 분석에서는 2012년도 한역본(3종)과 2012년도 이전 한역본(2종)으로 크게 둘로 구분하고, ST의 직접성의 문체가 TT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방법의 격률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다.

4. TT 분석 결과

4.1 ST의 said에 대한 대응표현

ST에서 수식어 없는 said는 총 142회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TT의 대응표현을 살펴보면, 2012년도 한역본들은 said를 ‘말했다’로 주로 번역했는데, 그중에서 김인규는 ‘말했다’로 번역한 회수가 총 129회(90.8%)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김인규가 said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what is said)’를 갖는 ‘말하다’로 주로 번역하였음을 나타낸다. 화행 관점에서 김옥동, 김인규는 said를 발화수반력이 있는 수행동사로 바꾸어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장경렬은 TT에서 발화양식 인용동사를 대부분 사용하였다(표 2, 3 참조). 또한 장경렬은 다른 번역가들과 달리 ‘말을 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해당 인용동사 전후 발화의 연관관계를 부각한 것이 독특하다. 2012년도 한역본들이 said를 주로 ‘말했다’로 번역한 데에 비해, 2012년도 이전 저자인 김병철은 이례적으로 생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TT에서 수식어 없는 said에 대응하는 번역어(총 142회) 중에서 73회, 50% 이상을 차지한다. 2012년도 이전 한역본에서 생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데 비해, 2012년도 한역본에서는 각각 김옥동 7회, 장경렬 4회, 김인규 2회로 비율이 크게 낮다(표 2 참조). 번역에서 생략을 의도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ST의 유표적 표현이 TT에서 상실되어, ST의 문체 특

성이 TT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표 2> ST의 수식어 없는 said에 대한 TT 대응표현 비교

번역가	TT 인용동사	빈도	화행여부
김옥동 (2012)	말했다	101	발화양식
	대답했다	15	화수력 *
	생략	7	
	이렇게 말하고(직시어 포함)	7	발화양식+직시
	그 외	12	
장경렬 (2012)	말했다	93	발화양식
	말을 이었다	26	발화양식
	이렇게 말했다(직시어 포함)	11	발화양식+직시
	생략	4	
	그 외	8	
김인규 (2012)	말했다	129	발화양식
	대답했다	9	화수력
	이렇게 말하고(직시어 포함)	1	발화양식+직시
	생략	2	
	대꾸했다	1	화수력
김병철 (1967)	생략	73	
	중얼댔다	31	발화양식
	맞장구를 친다	6	화수력
	하고	5	발화양식
	그 외	27	
정봉화 (1955)	말했다	67	발화양식
	생략	27	
	중얼 거린다	13	발화양식
	대답했다	5	화수력
	그 외	30	

* 화수력: 발화수반력

ST의 인용동사 said에 대응하는 TT 인용동사의 특성을 발화양식, 발화양식 및 직시어 포함, 발화수반력, 발화수반력 및 직시어 포함, 발화양식 및 발화수반력, 생략, 대체의 범주에 따라 다음 <표 3>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3〉 수식어 없는 said-TT 인용동사의 특성 구분

	발화양식	발화양식 +직시	발화 수반력	발화수반력 +직시	발화양식 +발화 수반력	생략	대체
김옥동	106	7	21	0	1	7	0
장경렬	122	11	2	0	1	4	2
김인규	129	1	10	0	0	2	0
김병렬	47	1	15	2	0	73	4
정봉화	98	5	9	0	1	27	2

2012년도 한역본들은 발화양식을 나타내는 동사표현으로 주로 번역하여 ST의 문체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2012년 이전 한역본들은 이를 생략함으로써 ST의 유표적 표현에 의한 문체 특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화행과 관련있는 발화수반력을 나타내는 동사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김옥동(21회), 김병렬(15회)이다. 이것은 ST 문체의 직접성 및 비해석적 관점에 대해 김옥동, 김병렬의 TT 중 일부에서 인용문의 화행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김옥동, 장경렬은 ST 및 다른 TT와 달리 직시표현이 포함된 발화양식 인용동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TT 독자가 TT 맥락에 친숙하는 사실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표적 표현인 said의 번역에서 주의할 점은 ST의 발화양식 인용동사에 대해 번역에서 발화수반력이 있는 동사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번역가가 ST의 인용문의 화행을 스스로 해석함으로써 ST의 문체를 TT 독자에게 왜곡하여 전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4.2 ST의 said aloud에 대한 대응표현

ST에서 said aloud는 총 30회 사용되었다. 2012년도 한역본들은 said aloud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what is said)’인 ‘큰 소리로 말했다’로 주로 번역(김옥동 26회, 장경렬 18회, 김인규 25회)하여 발화양식 특성을 유지한 데 비해, 2012년 이전 한역본에서 김병렬은 ‘큰 소리로 외쳤다(13회)’와 ‘큰 소리로 중얼댔다(7회)’로, 정봉화는 ‘소리 친다(6회)’, ‘큰소리를 지른다(4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표 4〉 ST의 said aloud에 대한 TT 대응표현 비교

번역가	TT 인용동사	빈도	화행여부
김옥동 (2012)	큰 소리로 말했다	26	발화양식
	큰 소리로 외쳤다	3	발화양식+화수력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1	발화양식
장경렬 (2012)	큰 소리로 말했다	18	발화양식
	큰 소리로 외쳤다	6	발화양식+화수력
	그 외	6	
김인규 (2012)	큰 소리로 말했다	25	발화양식
	큰 소리로 외쳤다	2	발화양식+화수력
	소리 내어 말했다	2	발화양식
	크게 소리쳤다	1	발화양식
김병철 (1967)	큰 소리로 외쳤다	13	발화양식+화수력
	큰 소리로 중얼댔다	7	발화양식
	큰 소리를 질렀다	3	발화양식
	그 외	7	
정봉화 (1955)	소리 친다	6	발화양식
	큰소리를 지른다	4	발화양식
	큰 소리로 외친다	3	발화양식+화수력
	그 외	17	

* 화수력: 발화수반력

2012년 이전 한역본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대응표현의 선택에서 2012년도 한역본들의 표현은 대체로 유사한 데 비해, 2012년도 이전 한역본들은 표현의 선택에서 이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병철은 ‘큰 소리로 외쳤다’와 ‘큰 소리로 중얼댔다’로 번역하였는데, 문자적 의미상으로 ‘외쳤다’에 큰 소리가 포함되므로 중복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중얼대다’와 ‘큰 소리’는 소리의 크기상 상반되는 개념인데 섞어서 표현하였다. 정봉화는 다른 번역가가 발화와 관련된 표현으로 번역한 데 비해,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뜻의 ‘소리 친다’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 (18) “The ocean is very big and a skiff is small and hard to see,” the old man said. He noticed how pleasant it was to have someone to talk to instead of speaking only to himself and to the sea. “I missed you,” he said. “What did you catch?” (124) (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이 부분은 노인이 바다에서 돌아와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ST의 종결부에 해당한다. 노인은 바다에서 대화 상대가 자신과 바다뿐이었음을 말한다. 여기서의 바다는 바다에서 만난 여러 자연의 대상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무생물인 자연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며,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말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므로 독백인 것이다.4) <표 5>는 ST의 인용동사 said aloud에 대응하는 TT 인용동사의 특성을 발화양식, 발화양식 및 직시어 포함, 발화수반력, 발화양식 및 발화수반력, 생략, 대체의 범주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표 5> said aloud-TT 인용동사의 특성 구분

	발화양식	발화양식 + 직시	발화수반력	발화수반력 + 직시	발화양식 + 발화수반력	생략	대체
김옥동	27	0	0	0	3	0	0
장경렬	22	2	0	0	6	0	0
김인규	28	0	0	0	2	0	0
김병렬	15	0	0	0	15	0	0
정봉화	16	4	0	0	8	2	0

2012년도 한역본들은 said aloud를 발화양식을 나타내는 동사표현으로 주로 번역하여 ST의 문체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2012년도 이전 한역본들은 발화양식 인용동사 뿐만 아니라 발화양식과 발화수반력을 함께 갖는 인용동사로 번역함으로써 ST의 유표적 표현을 통한 문체 특성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김병렬은 발화양식과 발화수반력을 모두 갖는 인용동사로 번역한 빈도가 높으며, 장경렬, 정봉화는 ST 및 다른 TT와 달리 직시표현이 포함된 발화양식 인용동사를 일부 사용하였다. ST의 발화양식 인용동사에 대해 번역에서 발화수반력이 있는 동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번역가가 ST의 인용문의 화행을 해석하여 TT 독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ST의 문체 특성인 직접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

4) 바다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발화에 대한 인용동사로 사용된 said, said aloud, asked, asked aloud, said softly aloud,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는 텍스트의 표현과 맥락과 지식에 따라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면 모두 독백에 대한 인용동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표 6>은 ST에 사용된 said aloud 표현에 대해 ST 내 위치와 빈도, 해당 발화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발화들은 노인이 살고 있는 세계인 쿠바의 어촌과 바다가 배경이며, 그의 생활 속에서 친숙한 관계를 갖는 친구와 적에 대한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 응대의 톤을 유지하고 있다.

<표 6> ST에서 said aloud의 사용 위치 및 빈도, 인용문의 내용/시점

쪽	빈도	노인의 발화내용/시점
33	1	혼자 고기를 잡으러 나와서 처음 한 발화의 인용동사. 만새기 발견 전 군함새의 비행 모습을 보고 한 말
34	1	만새기를 발견하고 한 말
37	1	다랑어를 발견하기 전 새의 동작을 보고 한 말
39	2	날개다랑어를 발견하고 한 말/바다에서 혼자이므로 큰 소리로 말한다고 노인이 말함
42, 44	각 2, 1	청새치를 잡으러 하면서 한 말
45, 48, 50, 51	각 1	소년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함
56	2	소년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소금이 필요하다고 함
67	1	청새치에게 그가 지켰을거라고 말함
68	2	상어의 공격을 우려함/디마지오가 본 스피로 인해 통증이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겠다고 말함
75	1	지금 잡고 있는 청새치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함
77	1	자신에게 수일 간 잠자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함
103	2	상어가 자신이 잡은 청새치에서 40파운드를 떼어먹었음/청새치 고기를 빼앗긴 일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격려함
104	1	상어와 싸울 도구를 새롭게 생각해냈을 때
105	1	생각이 많은 자신을 나무람
106	1	덴투소를 죽인 일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함
107	2	갈라노를 발견했을 때의 비명소리/“갈라노”를 외침
110	2	갈라노에게 청새치 고기를 빼앗긴 일을 말함/생각을 계속하는 자신을 타이름
116	1	불운을 탓하는 자신을 나무라면서 격려함
120	1	자신의 실패를 탓하지 않고, 단지 너무 멀리 나갔음을 반성

앞의 예문 (16)에 따르면 said aloud는 소년이 떠나고 노인 혼자서 고기를 잡으면서 발화할 때, 자기 생각을 독백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이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기를 발견했을 때, 청새치를 잡는 과정에서, 상어와 싸울 때,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올 때 사용되었다. said aloud는 TT에서 인용동사로 총

30회 사용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노인이 처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유표적 표현이다. 바다에서 수많은 친구와 적을 만나 홀로 대처해나가는 노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에서 *said aloud*로 전달되는 인용문은 소설이나 극중에서 자신에게 하는 독백(soliloquy)이 그렇듯이 ST에서 극적인 효과를 전달한다(표 6 참조). ‘큰 소리로 말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said aloud*를 말해진 대로 전달하면서도, ST와 마찬가지로 TT에서 이례적으로 반복하여 전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said aloud*의 유표적 의미를 TT에서 적절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표적 의미 전달 관점에서 2012년도 한역본들의 번역이 적절하며, 2012년도 이전 한역본의 번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표 4 참조). 다만 *aloud*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⁵⁾ (15)에 따르면 *aloud*는 혼자된 노인이 바다에서 자신이나 바다에게(결국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이므로, ‘소리내어 말했다’가 원래의 의미에 적합하다. ‘큰소리로 말했다’는 번역은 TT 독자가 ST 원문을 *said loudly*로 오해할 수 있고, (15)의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19) Now you are getting confused in the head, he thought. You must keep your head clear. Keep your head clear and know how to suffer like a man. Or a fish, he thought.
 “Clear up, head,” he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Clear up.” (92)

노인이 청새치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장면인 위 (19)에 등장하는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는 *said aloud*와 상반되는 표현으로, 청새치와의 극한대결로 인해서 노인이 정신적으로도 몹시 지쳐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번역으로는 지친 상태를 전달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TT에

5) *aloud* adv.

1. with the speaking voice in a way that can be clearly heard
 2. archaic : in a loud manner : LOUDLY
-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loud> 참고

서는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김동욱)’,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장경렬)’, ‘자신도 거의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김인규)’, ‘자기 귀에도 거의 안 들릴 만한 음성으로 중얼댔다(김병철)’, ‘자기 자신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가느다란 음성으로 말한다(정봉화)’로 각각 번역하였는데,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가 될 것이다. 해당 발화는 노인이 몹시 지쳐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발화의 초점은 소리가 작다는 쪽보다 지쳐있는 쪽이 더 적합하다.

4.3 said 포함 표현들에 대한 TT 대응표현의 일관성

ST에서 유표적 표현인 인용동사 said는 수식어 없이 142회 사용되었으며 said aloud도 30회 사용되었다. 그 외에 빈도는 각각 1회에 불과하지만 said happily와 said softly, aloud, 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said to him, said to his left hand도 사용되었다.

〈표 7〉 ST의 said 포함 인용동사와 TT 대응표현의 대비

번역가	ST 인용동사	TT 인용동사
김옥동 (2012)	<u>said</u> <u>said aloud</u> <u>said happily</u> <u>said softly aloud</u> <u>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u>	말했다(101)/대답했다(15) 큰 소리로 말했다(26)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1) 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u>말을</u> <u>걸었다</u> (1)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1)
장경렬 (2012)	<u>said</u> <u>said aloud</u> <u>said happily</u> <u>said softly aloud</u> <u>said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u>	말했다(93)/말을 이었다(26) 큰 소리로 말했다(18)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1) 부드럽지만 큰 목소리로 <u>이렇게</u> <u>말했다</u> (직시표현 포함)(1)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u>이렇게</u> <u>말했다</u> (직시표현 포함)(1)

김인규 (2012)	<u>said</u> <u>said</u> aloud <u>said</u> happily <u>said</u> softly aloud <u>said</u>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말했다(129) 큰 소리로 말했다(25)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1) 다정하게, 하지만 큰 소리로 말했다(1) 자신도 거의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1)
김병철 (1967)	<u>said</u> <u>said</u> aloud <u>said</u> happily <u>said</u> softly aloud <u>said</u>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생략(73)/중얼댔다(31) 큰 소리로 외쳤다(13) 자못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대체표현)(1) 크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1) 자기 귀에도 거의 안 들릴 만한 음성으로 중얼댔다(1)
정봉화 (1955)	<u>said</u> <u>said</u> aloud <u>said</u> happily <u>said</u> softly aloud <u>said</u> in a voice he could hardly hear	말했다(67)/생략(27) 소리 친다(6)/큰소리를 지른다(4) 즐거운 듯이 말하였다(1) 부드러우나 높은 음성으로 소리 쳤다(1) 자기 자신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가느다란 음성으로 말한다(1)

*(): 빈도

2012년도 한역본들은 said에 수식어가 부가되어도, said를 ‘말했다’로 규칙적으로 번역한 데 비해, 2012년도 이전 한역본 저자인 김병철은 다른 번역과 달리 said를 ‘말하다’가 아니라, ‘생략/중얼댔다’, ‘외쳤다’와 대체표현인 ‘모양이다’, ‘목소리였다’ 등으로 번역하였고, 정봉화는 ‘말했다’, 생략, ‘소리 친다’, ‘지른다’, ‘말하였다’, ‘소리 쳤다’, ‘말한다’로 규칙성 없이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이처럼 2012년도 번역과 종전 번역은 규칙성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이것은 TT 저자들의 said에 대한 문체 특성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단(2005: 165)은 김병철의 한역본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편으로, 전반적으로 큰 오류는 없으나 세밀한 번역이 필요한 문장을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후 한역본들은 거의 김병철 한역본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까지 논하였다(사업단 2005: 165). 따라서 2012년도 이전의 한역본들은 전반적으로 번역이 세밀하지 못했던 김병철 한역본의 영향으로 인해 문체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한역본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봉화 역본은 사업단이 분석한 최초의 번역서로서 가독성은 있으나 원문에 없는 군말

이 많이 덧붙여져 있고 부정확한 번역이 적지 않으며 번역의 누락까지 발견된다(사업단 2005: 163).

5. 결론

헤밍웨이 문체의 특징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저널리스트 같은 산문이다. 마갈라(Margala 2009)의 주장처럼 문학번역에서 ST의 함축 의미를 TT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여, TT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함축 의미는 맥락의존적 추론이라는 함축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이므로, TT에서 ST와 동일하게 대응하는 ‘말해진 것’을 사용할지 아니면 계산을 거쳐 화자의 의도를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전달할지 번역가가 개입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함축에 대한 계산을 거쳐서 ST의 함축 의미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문학번역평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TT 언어와 ST 언어, TT 독자와 ST 독자 간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점은 ST에 담긴 함축 의미의 전달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된다. 헤밍웨이는 독특한 문체 특성을 갖는 작가이므로, 그의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ST 저자의 문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TT에서 ST의 함축 의미를 최대한 적절하면서 충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The Old Man and the Sea*의 경우 헤밍웨이는 직접화법 인용동사로서 *said*를 이례적으로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수행동사를 *said*로 대체함으로써 *said*를 통해서 전달되는 직접화법의 대화내용을 ST 저자의 해석 없이 직접적으로 ST 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들 대화내용은 대부분 노인과 소년, 노인의 독백, 노인과 바다의 대화이므로 전반적으로 응대의 톤을 갖는다.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방법의 격률 중 하위조항 ‘간결하게 말하라’, 즉 ‘불필요한 장광설을 피하라’를 위배하는 것으로, ST 전체적으로 인용동사 *said*의 이례적 빈도의 사용을 통해서 인용문이 전하는 대화 내용이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친구나 적의 관계를 전달하고 있음을 ST 독자가 함축 의미를 통해서 추론하도록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분석대상 텍스트를 대조, 비교 분석한 결과, ST에서 방법의 격률을 위배하여 다른 함축 의미를 생성하여 독특한 문체 특성을 전달하는 점에

대해 2012년도 김옥동, 장경렬, 김인규의 한역본들은 ST의 문체 특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TT를 생성하였지만, 2012년도 이전 김병철, 정봉화의 한역본들은 ST의 문체 특성을 전달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 많았다. 영한 문학번역에서 ST가 방법의 격률을 위배하여 같은 표현을 과다하게 반복함으로써 유표적 표현을 통해서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TT 저자는 그 함축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헤밍웨이는 작품 내의 모든 인용문의 인용동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said를 과다하게 반복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용문의 화행을 저자가 직접 해석하여 독자에게 제시하는 일반적인 수행동사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인용문의 응대 톤을 독자가 직접 추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 대해 번역가들은 ST의 문체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인용문의 화행에 맞춰 수행동사를 TT 인용문의 인용동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라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중 하나인 방법의 격률을 통해서 ST의 문체 특성과 그 함축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방법의 격률의 적용을 통해서 TT에서 ST의 문체 특성과 함축 의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영한 문학번역에서 문체 특성의 반영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방법의 격률이 유용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ST의 문체 특성을 적절히 전달하는 좋은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의 준수 또는 위배를 통해서 ST 저자가 생성한 함축 의미를 TT 저자인 번역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TT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12)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응용한 번역 격률: 한-영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1): 7-31.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파주: 창비.
- 이성범 (2002)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전영철 (1990) 「한국어 인용동사에 관하여」, 『언어연구』 1: 41-54.
- 조의연, 조숙희 (2018) 「번역연구에서 그라이스 대화 격률의 유용성」, 『번역학 연구』 19(5): 155-172.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Heaton, C. P. (1970) 'Style in the Old Man and the Sea', *Style* 4(1): 11-27.
- Justus, James H. (1983) 'The Later Fiction: Hemingway and the Aesthetics of Failure', in A. Robert Lee (ed.) *ERNEST HEMINGWAY: New Critical Essays*, London and Totowa, NJ: Vision and Barnes & Noble, 103-121.
- Margala, Miriam (2009) 'Grice in Translation: The Case of Hrabal',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10(2): 87-128.
- Rett, Jessica (2020) 'Manner Implicatures and How to Spot Them', *International Review of Pragmatics* 12(1): 44-79.
- Yule, George (2018) *Explaining English Gramma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온라인 자료>

- 김경은 (2012.6.1.) 「헤밍웨이 저작권료 0원... 서점엔 '노인과 바다' 밀물」, 『조선일보』, 2023년 2월 2일 검색.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1/2012053103020.html
- 이지은 (2012.2.7.)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번역해 각각 펴낸 두 교수에게 차이점을 묻다」, 『동아일보』, 2023년 2월 2일 검색.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20207/43838689/1>
-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loud>

<분석텍스트>

- Hemingway, Ernest (1952) *The Old Man and the Sea*, New York and London: Scribner.
- 김병철 (1967)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전집I, 서울: 휘문출판사.
- 김옥동 (2012) 『노인과 바다』, 서울: 민음사.

김인규 (2012) 『노인과 바다』, 파주: 문학동네.

장경렬 (2012) 『노인과 바다』, 서울: 시공사.

정봉화 (1955) 『바다와 老人』, 大新文化社.

[Abstract]

**Grice's Maxims as a Useful Instrument for Evaluating
Stylistic Adequacy in English-Korean Literary Translations:
A Detailed Analysis of Quotative Verbs Used in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Sang-bon Koo
(Independent Researcher)

Hemingway's literary style is characterized by flat, dry, and journalistic prose. In addition, he did not directly pres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s used in his works to the reader. Instead, he enabled the readers to infer the implicatures of the expressions through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knowledge about the world. Building on Grice's maxim of manner, this study investigates a particular aspect of Hemingway's style and the way it was mirrored in five Korean translations. In his novella *The Old Man and the Sea*, Hemingway uses the direct speech quotative verb 'said' much more frequently than other writers, and produces direct stylistic effects by flouting the sub-maxim 'avoid unnecessary prolixity' under Grice's maxim of manner. This study shows that source-language implicatures should be retained in translations and that the maxim of manner can be used as a valid instrument for evaluating the stylistic adequacy of literary translations.

Keywords: maxim of manner, stylistic feature, quotative verb, marked, implicature, literary translation evaluation

주제어: 방법의 격률, 문체 특성, 인용동사, 유표적, 함축, 문학번역평가

구상본

독립연구자(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박사)

sangbonk@dongguk.edu

관심 분야: 화용론, 번역비평

논문 투고: 2023년 2월 7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8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6일